◈ 4강: 사르트르 vs 알튀세르
: 인간에게 자유는 가능한가? ◈

여러분은 거미를 압니까? 물론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은 거미가 어떻게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옮겨 가는지를 압니까? 우선 거미는 자신의 거미줄을 힘이 닿는 대로 허공 속에 뿜어냅니다. 간혹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거미줄은 허무하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미가 실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허공 속으로 거미줄을 뿜어냅니다. 다행히도 이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이제 그 바람을 타고 거미줄은 다른 나뭇가지에 금방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거미는 몹시 신중한 동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을 그렇게 걸린 거미줄에 조용히 갖다 대고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행히도 어떤 사람이 거미줄을 찢고서 걸어갑니다. 다시 거미줄은 땅바닥으로 추락합니다. (……) 마침내 거미는 이제 자신의 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유히 곡예를 하듯이 자신이 있던 나무에서 또 다른 나무로 건너가는 것이지요.

-강신주, 『철학, 삶을 만나다』

1. 주체는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

◈ 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있는 이 미래가 단순히 존재를 너머서 존재에 대해 현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이다. (...) 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미래'의 존재는 단지 내가 그것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는 미래를, 그 아래서부터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가 나의 대자의 가능성의 기투로서 나의 현재적 '대자(pour-soi; For-Itself)'의 의미를 구성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결코 도래할 나의 '대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대자'는 항상 자신이 무(Néant; Nothingness)의 근거로 있어야 한다는 이런 무화하는 의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와 무(L'Être et le Néant)』

▶ 표현은 매우 난해한데 사실 사르트르의 속내는 그의 주저인 『존재와 무(L' Être et le Néant)』라는 제목에서 이미 웅변적으로 드러난다. '존재(Être)' 라는 개념은 의자처럼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물들, 따라서 자유가 없는 것들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반면 '무

(le Néant)’라는 것은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본질이 ‘없다(Nothingness)’는 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드는 존재라는 점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 후자의 측면과 관련해 사르트르는 인간을 ‘존재(Être)’가 아니라 ‘실존(existence)’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existence’라는 개념이 ‘실존(實存)’로 번역되는 관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인간을 ‘existence’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밖으로(ex)’ 향하는 ‘존재(istence)’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istence’의 번역어로 ‘실존(實存)’보다는 ‘탈존(脫存)’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탈존’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부단히 넘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2.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 나는 최초의 정식으로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 우리는 아주 흔한 경찰의 (또는 다른) 일상적인 호명과 같은 유형 속에서 그것을 표상할 수 있다. "헤이, 거기 당신!" 만일 우리가 상정한 이론적 장면이 길거리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호명된 개체는 뒤돌아볼 것이다. 이 단순한 180도의 물리적 선회에 의해서 그는 주체가 된다. 왜? 왜냐하면 그는 호명이 '바로' 그에게 행해졌으며, '호명된 자가 바로 그'(다른 사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와 국가장치(Idéologie et Appareils d'Etat)」

▶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라는 알튀세르의 생각은 흔히 ‘호명(interpellation) 테제’라고 불린다. 어떤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는 벌거벗은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는 이미 그를 부를 준비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이라는 성을 쓰는 가정의 한 성원, 남자, 한국인, 노동자 계층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 구조에 익숙해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정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를 부르기 시작한다. “애야!”라고 부르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답하는 순간, 구체적인 개인은 점차 특정한 주체로 구성되기 시작한다. 결국 호명이란 행위를 통해서 주체는 스스로 사회 구조의 어떤 한 가지 배역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이렇게 주체로 호명된 뒤, 구체적인 개인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생각이나 행동들에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적인 표상체계로서 작동하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알튀세르의 비정한 진단은 치유의 희망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년에 알튀세르는 「마주침의 유물론이라는 은밀한 흐름」의 제목을 단 장문의 논문을 통해서 스피노자적이면서도 니체적이고 동시에 루크레티우스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장, 인간에게 새로운 구조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